



KWC 2019 American wine

국내 시장에서 미국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KWC 2019에도 미국 와인은 49종이 출품됐다. 전년도 28종 참가한 것에 비해 부쩍 늘어난 숫자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등 미국 세 개 주에서 여러 와인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다. KWC 2019에서 수상한 미국 와인들을 각 주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Wikipedia, Washington State Wine, 캘리포니아와인협회, Pixabay



①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KWC 2019에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미국 와인을 대표하는 3개 주에서 다양한 와인들이 참여했다. 미국 와인이라면 으레 캘리포니아를 떠올리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미국 와인들이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②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

가장 비중이 높았던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 누아, 샤르도네다. 그 외 리슬링, 진판델, 까베르네 프랑 등이 눈에 띄었고, 럼 배럴에서 숙성한 메를로와 버번 위스키 배럴에서 숙성한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흥미로운 와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③ 미국 와인에 대한 호평

“미국 샤르도네가 흥미로웠다.” “미국 블렌드 와인 카테고리 인상 깊었다.” “미국 까베르네 소비뇽은 밸런스가 좋고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 등 KWC 2019에 출품한 미국 와인들은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California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세계적인 와인 산지다. 천혜의 자연, 넉넉한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와인 생산자들의 열정이 아우러져 미국에서도 최대의 와인 산지가 되었고, 이 나라 와인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약 2천만hl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다. 캘리포니아는 북에서 남으로 태평양 연안을 끼고 해안선이 길게 뻗어있다. 무려 2,000km에 달한다. 와인 산지는 이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다. 또한 두 개의 커다란 산맥이 있어 이 지역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발달한 해안 산맥(Coast Range), 다른 하나는 해안에서 약 160~200km 내륙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Sierra Nevada Mts.)이다. 앞의 것은 1,200m에 이르는 몇몇 준봉을 제외하고서는 비교적 완만한 산과 울창한 숲으로 되어있다. 반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화강석을 베이스로 고산 준봉의 험준한 산맥으로 돼 있다. 한 마디로 청정한 자연과 일조량, 알맞은 기온과 적절한 강우량, 비교적 높은 습도, 그리고 모래, 진흙, 화산토 등으로 돼있는 토양 등이 궁극적으로 이 지방 포도의 생장에 특별한 개성을 부여한다.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는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진다.

North Coast AVA 북부 해안 지역

북부 해안 지역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와인 산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지이다. 샌프란시스코 만을 끼고 해양성 기후가 발달해 있으며, 거대한 산맥과 울창한 숲 등이 포도를 기르는 데 좋은 조건을 마련해준다. 북부 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AVA(American Viticultural Area)로는 나파 밸리, 소노마 카운티, 멘도시노 카운티, 레이크 카운티, 로스 카르네로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나파 밸리와 소노마 카운티는 미국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나파 밸리는 와인 생산에 쓰이는 포도 수확량은 캘리포니아 전체 생산량의 4%에 불과하지만, 명성만큼은 캘리포니아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AVA다. 1981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먼저 AVA를 획득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지역 와이너리의 90% 이상은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며, 소량의 고급 와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편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빚으며, 샤르도네 와인으로도 명성이 높다. 그 외 소비뇽 블랑, 메를로, 진판델도 많이 재배된다. 반면 나파 밸리와 이웃한 소노마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포도 생산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다. 패방대한 지역인 만큼 기후와 토양도 다양하고, 생산되는 와인 스타일도 세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례로 소노마 코스트 AVA와 러시아 리버 밸리 AVA는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로 유명하며, 드라이 크릭 밸리는 진판델과 까베르네 소비뇽이 잘 되는 지역이다.



Central Coast AVA 중부 해안 지역

1700년대 후반 프란시스코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왕들의 길' (Camino Real)을 따라 북상하는 길에 포도를 재배했다는 이 지역은 캘리포니아에서도 포도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지도를 펼쳐보면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여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는 리버모어 밸리(Livermore Valley)에서 남쪽으로 차례대로 산타크루즈 마운틴(Santa Cruz Mountains), 몬터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 파소 로블스(Paso Robles),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San Luis Obispo County) 그리고 산타 바바라 카운티(Santa Barbara County)로 이어진다.

이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으로 80km 떨어진 산타크루즈 마운틴은 그 유명한 실리코 밸리 바로 아래에 있다.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 만, 산맥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미세 기후들이 형성되는 곳이다. 위쪽 언덕지대와 서쪽은 피노 누아가 잘 자라는 반면, 내륙으로 들어가면 진판델, 까베르네, 메를로 등이 훌륭하다. 파소 로블스는 전반적으로 좀 더 무더운 지역으로 시라를 비롯해 온 품종들로 유명하며, 까베르네 소비뇽도 잘 자란다. 마지막으로 파소 로블스 아래에 있는 산타 바바라는 다시 좀 더 선선한 기후로 돌아선다. 미국 시장에서 피노 누아 열풍을 불게 한 영화 '사이드웨이'의 배경지이기도 하다.

South Coast AVA 남부 해안 지역

남부 해안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 샌디에고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가장 캘리포니아적인 맑은 기후와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태평양이 다소 무덥고 건조한 기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진판델이 널리 재배된다. 남부 해안 지역은 그간 질보다는 양으로 더 승부를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차 이곳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가장 중심적인 와인 산지는 테마쿨라(Temecula)이며, 샌디에고에서는 해발고도 1,300m 고지대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기도 한다.

Central Valley AVA 센트럴 밸리 지역

센트럴 밸리 지역은 서쪽의 해안 지역과 동쪽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농업의 중심지이다. 주도인 새크라멘토(Sacramento) 남쪽에 자리 잡은 산 조아퀸 밸리(San Joaquin Valley)와 근래 주목받고 있는 로다이(Lodi)가 있다. 로다이는 낮고 따뜻하고 밤은 서늘한 지중해성 기후를 띤다. 토양은 주로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고 커다란 자갈이 덮여 있는 모양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올드반으로 빛은 진판델이다. 그 외 메를로,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소비뇽 블랑 등이 많이 재배된다.

Sierra Nevada AVA 시에라 네바다 지역

캘리포니아를 덮고 있는 커다란 산맥 중 하나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 발처에 발달한 지역이다. 시에라 풋힐이라 불리기도 한다. 1848년 이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났다. 1852년 경 황금의 붐이 끝이 나자 그간 이곳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산맥 근처에 포도밭을 일구면서 와인 산지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시에라 네바다 AVA는 유바, 네바다, 플레이서, 엘 도라도, 아마도르, 칼라베라스, 투룸너, 마리포사 등 8개의 카운티를 감싸고 있다. 와인 생산으로는 엘 도라도와 아마도르 카운티가 유명하다. 진판델로 뛰어난 와인을 만들며, 소비뇽 블랑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KWC 2019 수상 와인

Robert Mondavi Winery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

1966년, 전설적인 생산자 로버트 몬다비가 그의 이름을 따 나파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로버트 몬다비는 미국 와인이 구세계 와인에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품질을 가졌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퍼뜨린 주역이다. 현재까지도 그의 와이너리는 미국 와인을 대표하는 생산자로 꼽힌다. 로버트 몬다비 와인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시상식 만찬 등 백악관 행사에 자주 등장해 '백악관 와인'으로도 불린다. 2013년 3월에는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대한민국 CEO가 가장 선호하는 와인 브랜드' 1위로 선정됐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obert Mondavi Winery Napa Valley Red Blend Maestro
Silver Robert Mondavi Winery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

로버트 몬다비는 1994년, 자신이 이뤄낸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에 착수했다. 중부 해안 지역 몬터레이 카운티에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을 설립한 것이다. 프라이빗 셀렉션 와인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라인지로 구성돼 소비층이 다양하다. 2015년에는 와인메이커 제이슨 닷지(Jason Dodge)를 영입해 다양한 시도를 접목한 와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버번위스키 배럴에 숙성한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 럼 배럴에 숙성한 메를로 등이 있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Bourbon Barrel Aged Cabernet Sauvignon
Gold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Cabernet Sauvignon
Silver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Rum Barrel Aged Merlot

Woodbridge by Robert Mondavi

우드브릿지 바이 로버트 몬다비

미국 와인 세계화의 선구자 로버트 몬다비가 1979년 캘리포니아 로다이(Lodi) 지역에 세운 와이너리다. 해당 지역 포도밭 생산자 조합을 인수하며 인근에 있는 우드브릿지 마을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드브릿지는 좋은 와인을 더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만들자는 운영 철학을 내걸고 있다. 날마다 마셔도 부담이 적을 만큼 산뜻하고 균형 잡힌 와인 생산이 궁극적인 목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우스 와인으로도 꼽힌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Woodbridge by Robert Mondavi Red Blend

The Prisoner Wine Company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는 와인메이커 데이브 피니(Dave Phinney)의 손에서 시작된 와이너리다. 나파 밸리 내 세인트 헬레나에 자리 잡고 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의 작품 등 어둡고 강렬한 흑백 톤 레이블 디자인을 주로 사용한다. 모든 와인 레이블은 제각기 예술적인 뜻을 내포한다. 차별화된 품질과 눈길을 끄는 이미지로 전 세계 와인 애호가와 비평가들에게 각광을 받는 추세다. <Wine Spectator>가 선정한 탑 100 와인에 여러 차례 자사와 인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est USA Red The Prisoner Wine Company Derange
Gold The Prisoner Wine Company The Prisoner
Gold The Prisoner Wine Company The Snitch
Silver The Prisoner Wine Company Blindfold
Silver The Prisoner Wine Company Cuttings
Silver The Prisoner Wine Company Saldo



Delicato Family Vineyard 델리카토 패밀리 빈야드

캘리포니아 전역 17,300ac 이상의 자가 소유 포도밭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이다. 1924년에 설립된 델리카토 패밀리 빈야드는 가족 경영으로 96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와인 수출 Top 10에 드는 생산자이며 블랙 스탈리온, 퍼스트 프레스, 날리 헤드, 노블 바인 등 다양한 브랜드가 속해있다. 특히 <Wine & Sprits>가 선정한 올해의 미국 와인 생산자에 3차례 선정되었고,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만찬 와인으로도 유명하다. 수입사 레벳드매일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Black Stallion Estates Cabernet Sauvignon
- Gold** First Press Cabernet Sauvignon
- Silver** First Press Chardonnay
- Silver** Gnarly Head 1924 Limited Edition Double Black Cabernet Sauvignon
- Silver** Noble Vines Collection 667 Pinot Noir

Buehler Vineyards 불러 빈야드

나파 밸리의 세인트 헬레나 산 동쪽에 위치한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이다. 1971년 미국의 대기업 백텔에서 임직원을 지낸 존 불러 시니어(John Buehler Sr.)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불러 빈야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300ac의 포도밭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를 이루며, 울드바인 진판델도 재배한다. 불러 빈야드는 섬세한 포도밭 관리와 절제된 양조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복합미와 깊이 있는 와인을 만든다. 또한 <Wine Spectator>의 100대 와인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 수입사 와이넬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Buehler Vineyards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Meadowcroft 미도우크로프트

소노마 카운티와 나파 밸리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와인메이커이자 오너인 톰 미도우크로프트(Tom Meadowcroft)는 19살부터 와인 양조의 꿈을 키웠다. 그는 보르도 지역의 와이너리에서 수년간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를 배우며 커리어를 쌓았다. 마침내 1999년 나파 밸리의 마운트 비더 지역에 포도밭을 매입하여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된다. 현재 나파 밸리와 소노마 카운티 특유의 특징을 살린 와인을 만들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 한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Meadowcroft Amador Zinfandel



Menage a Trois Wines 메나쥬 아 트로와

1996년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3가지 레드 품종을 블렌딩한 와인을 출시한다. 그들은 블렌딩한 와인에 즐거운 브랜드 네이밍을 더했고, 메나쥬 아 트로와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이 와이너리는 트린체로 패밀리(Trinchero Family Estate)에 인수된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그들은 2005년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또한 미국의 레드 블렌딩 와인과 프리미엄 레드 와인 부문에서 명성을 쌓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 수상 와인리스트**
- Bronze** Menage a Trois Silk Soft Red Blend

Ironstone Vineyard 아이언스톤 빈야드

존 코츠(John Kautz)는 1926년부터 로다이 지역에 밭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12ac의 포도밭을 소유한 그는 프리미엄 포도 생산자로 명성을 쌓았다. 그 후 로다이와 시에라 풋힐 AVA 지역에서 5,000ac의 포도밭으로 확장해나갔다. 마침내 존은 캘리포니아 포도 재배 협회로부터 2012 올해의 재배자에 선정된다. 4세대에 걸쳐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코츠 가문은 품질 좋은 포도와 장인의 손길로 매혹적이면서도 우아한 와인을 만든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법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사 WS통상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Ironstone Vineyard Lodi Cabernet Franc

Wente 웬티

웬티는 1883년, 리버모어 밸리 유역에 설립된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캘리포니아에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가족 소유 와이너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5대에 걸쳐 일가가 직접 양조와 와이너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웬티는 모든 생산, 재배 과정을 총괄하고 각 포도밭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한다. 연 평균 생산량은 50만 케이스다. 이 가운데 60%는 전 세계 150여개 국가로 수출된다. 야외 콘서트 개최, 18홀 골프 코스 조성 등으로 지역 관광과 문화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Napa Cellars 나파 셀라

1976년, 나파 밸리 오크빌에 설립된 와이너리이다. 나파 셀라는 리치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운 샤르도네 생산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로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한편 2006년 나파 밸리의 특성을 잘 살리며 전통 있는 와이너리를 찾고 있던 글로벌 그룹, 트린체로 패밀리에 인수되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Napa Cellars Chardonnay
- Bronze** Napa Cellars Pinot Noir

Washington 워싱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미국에서 큰 와인 생산지다. 현재 1000여 개에 달하는 와이너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난 십여 년간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워싱턴 주는 캐스캐이드 산맥을 기점으로 서부와 동부로 나뉜다. 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동부에서 재배되고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넘어오는 습한 기류는 올림픽 산맥의 봉우리에 걸려 꽤 많은 비를 뿌린다. 그리고 시애틀을 거쳐 캐스캐이드 산맥 안쪽에서 대부분의 비를 쏟아내고 산맥 너머 동부에는 극소량의 비만 내리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동부 워싱턴 주는 수확기 강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연히 병충해 피해도 줄어든다.

동부 워싱턴 주는 연중 약 300일의 맑은 날씨, 그리고 평균 17시간에 이르는 일조량을 보이는 곳이다. 또한 최대 17도에 이르는 일교차로 포도의 자연적인 산도 생성에 도움을 준다. 반면 이처럼 건조한 환경에서 포도를 재배하려면 관개용수는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컬럼비아 강이 이바지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 처음 포도가 식재된 것은 1823년부터이다. 이후 1860~1870년대에 워싱턴 주에 정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계의 이민자들이 지금의 알라발라 밸리 지역에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1903년을 기점으로 야키마 밸리와 콜럼비아 밸리에 대규모 관개 시설을 확충하고 포도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현재는 총 14개의 AVA 지역이 있고, 다음과 같다. 야키마 밸리(Yakima Valley), 알라발라 밸리(Walla Walla Valley), 콜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 퓨젯사운드(Puget Sound), 레드 마운틴(Red Mountain), 콜럼비아 고지(Columbia Gorge), 호스헤븐 힐스(Horse Heaven Hills), 왈루크 슬로프(Wahluke Slope), 래틀스네이크 힐스(Rattlesnake Hills), 스나이프스 마운틴(Snipes Mountain), 레이크 쉘란(Lake Chelan), 나치스 하이츠(Naches Heights), 콜럼비아 밸리의 앤시언트 레이크(Ancient Lakes of Columbia Valley), 루이스 클락 밸리(Lewis Clark Valley). 한편 워싱턴에서는 거의 7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포도를 재배한다.





Charles Smith Wines 찰스 스미스 와인즈

워싱턴 알라발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찰스 스미스의 와인 브랜드다. 찰스 스미스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와인메이커로 유명하다. 프랑스 출신 아버지와 웨일즈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며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경험했다. 오래 정착했던 덴마크에서는 록 밴드의 매니저 업무를 맡은 적도 있다. 1999년에 미국으로 돌아와 알라발라 밸리를 여행하던 중 와인 양조에 대한 꿈을 품게 돼 현재까지 양조자의 길을 걷고 있다. <Wine & Spirits>, <Wine Enthusiast> 등 유력 와인 매체에서 최고의 와이너리, 최고의 와인 메이커로 수차례 선정됐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rles Smith Wines Kung Fu Girl Riesling

Charles & Charles 찰스 & 찰스

비엘러 와인즈(Bieler Wines)의 찰스 비엘러(Charles Bieler)와 개성 넘치는 와인 메이커 찰스 스미스가 힘을 합쳐 만든 브랜드다. 찰스 비엘러는 남프랑스에서 배운 양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우수한 로제 와인을 전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인물이다. 2009년에 찰스 스미스가 <Food & Wine> 매거진 선정 올해의 와인메이커로 뽑혔을 때, 찰스 비엘러는 새로운 워싱턴 사업의 동반자로 그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한다. 찰스 & 찰스의 로제는 2012년 <Wine Spectator> 탑 100에서 42위에 오르기도 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arles & Charles Chardonnay
Silver Charles & Charles Rose

Double Canyon 더블 캐년

더블 캐년은 워싱턴 주의 홀스 헤븐 힐스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2007년 워싱턴 주에서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와이너리이다. 화산토, 고대 빙하 퇴적물과 강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이곳의 와인은 뚜렷한 풍미와 아로마를 자랑한다. 2017년, 이들은 웨스트 리치랜드에 새로운 와이너리 시설을 만들었다. 와인 메이킹의 전 과정에는 최신 테크놀러지가 도입되어 펄핑 오버, 온도 조절 등을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Double Canyon Horse Heaven Hills

Columbia Crest 콜럼비아 크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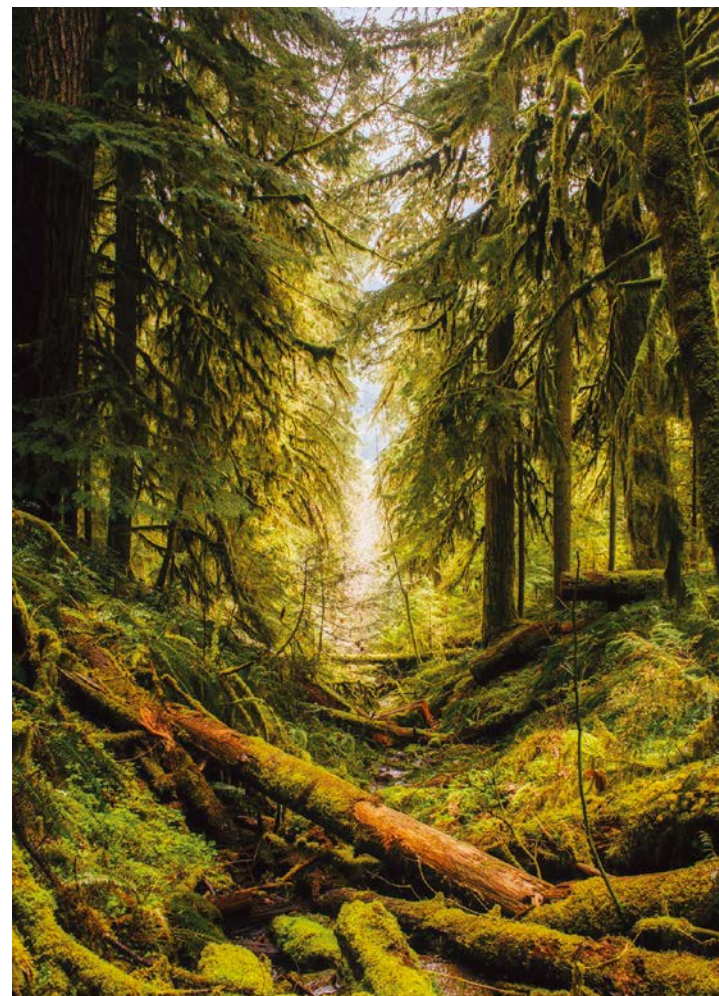
1983년에 설립된 콜럼비아 크레스트는 콜럼비아 밸리 AVA의 호스 헤븐 힐스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캐스캐이드 산맥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막아주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포도재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콜럼비아 크레스트는 워싱턴 주의 대표 와이너리로, 워싱턴 주 전체 수출량의 85%, 전체 생산량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가성비가 뛰어난 와인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olumbia Crest H3 Chardonnay

L'ecole No. 41 레콜 넘버 41

1983년 설립된 레콜 넘버 41은 워싱턴 주의 왈라 왈라 AVA에 위치해 있다. <Wine & Spirits>가 선정한 Top 100 와이너리에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생산자다. 워싱턴 주 대표 와이너리 중 한 곳인 레콜 넘버 41은 왈라 왈라 밸리의 페루아를 담은 프리미엄 와인을 만든다. 특히 옛 프랑스 학교를 와이너리로 개조하여, 현재 2개의 교실을 테이스팅 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상징인 칠판과 높은 서고는 와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입사 나라셀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ecole No. 41 Columbia Valley Cabernet Sauvignon



Oregon 오리건

미국 오리건 주의 와인 생산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60~70년대 아무도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릴 것으로 믿지 않은 불모지에 뛰어들어 포도나무를 심고 끝내 꿈을 이룩한 몇몇 개척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오리건 와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리건은 이제 세계적 수준의 와인을 내는 지역으로, 790여 개의 와이너리들 있으며 100여 종에 달하는 포도 품종을 경작한다. 특히 오리건은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피노 누아 외에는 피노 그리, 샤르도네, 리슬링, 까베르네 소비뇽 등이 많이 경작된다.

오리건의 AVA 지역은 현재 19개로, 다음과 같다. 윌라메트 밸리(Willamette Valley), 콜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 양힐 칼튼(Yamhill-Carlton), 왈라 왈라 밸리(Walla Walla Valley), 움쿠아 밸리(Umpqua Valley), 사우던 오리건

(Southern Oregon), 로구 밸리(Rogue Valley), 스네이크 리버 밸리(Snake River Valley), 더 록스 디스트릭트 오브 밀톤-프리워터(The Rocks District of Milton-Freewater), 레드 힐 더글라스 카운티(Red Hill Douglas County), 리본 릿지(Ribbon Ridge), 맥민빌(McMinnville), 엘크톤 오리건(Elkton Oregon), 이얼라 아미티 힐즈(Eola-Amity Hills), 던디 힐(Dundee Hills), 애플게이트 밸리(Applegate Valley), 케할렘 마운틴즈(Chehalem Mountains), 반 두저 코리도어(Van Duzer Corridor), 콜롬비아 고저(Columbia Gorge). 이 중에서도 가장 이름 난 AVA는 윌라메트 밸리다. 기후는 연중 온난한 편이다. 겨울은 선선하고 습하며 여름은 건조하고 덥다. 주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며 포도가 성정하는 시기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이 지역은 최고의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며 소규모 부띠끄 와이너리들이 많다.

Broadley Vineyards 브로드리 빈야드

윌라메트 밸리의 먼로마을에 위치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설립자 크레이그(Craig)는 1970년부터 부르고뉴 와이너리를 찾아다니며 피노 누아 품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0년 후 그는 오리건에서 피노 누아의 경작에 적합한 현 포도밭을 발견하게 된다. 이곳에서 그의 색깔이 담긴 피노 누아가 탄생했고, 1986년에 첫 와인을 출시한다. 현재 크레이의 아들 모건(Morgan)은 2대 와인메이커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직 피노 누아 와인만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솔트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Broadley Vineyards Estate Pinot Noir

